



## 한은,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.0%로 대폭 하향

채원영 연구원

-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.0%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4월 전망치 3.5%보다 0.5%p 낮아진 수치임.
  - 전망의 주요 전제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.2%, 세계교역 성장률은 2011년보다 2.2%p 낮아진 3.6%, 원유도입단가는 107달러,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은 -10.0%임.
  - 민간소비 증가율은 2.2%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.6%p 낮아졌는데 이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,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 회복 지연, 주택시장 부진 등 때문임.
  - 설비투자는 자동차, 통신 등 비IT부문을 중심으로 2011년에 비해 5.8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건설투자는 비주거용부문 주도로 2.3%의 완만한 증가폭을 나타낼 것임.
  - EU 및 중국으로의 수출 둔화 전망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요인으로 인해 2012년 상품수출 전망치는 4.4%로 지난 4월 전망치 4.8%보다 0.4%p 낮아졌음.
  
- 취업자 수는 38만 명 증가할 것으로,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7%, 경상수지는 흑자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  - 2012년 중 취업자 수는 정부정책<sup>1)</sup>으로 보건·사회복지분야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.
  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.5%p 낮아진 2.7%로 전망하였는데, 이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가 등 국제원자재 하락,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 등 때문임.
  -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, 여행수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개선 기대로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로 예상하였음.

(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, 한국은행, 7/13)

1)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 인원이 2만 4천 명 추가 되고 내년 3월에는 전면 무상보육 대상이 3~4세까지 확대될 예정임.